

# 대구시의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방의회 발전 기여 공로 인정



2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한 대구시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7명 의원,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

대구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거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지만, 김재우, 홍인표, 이태손, 김성태, 황순자, 송영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발해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의원들의 주요 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대구시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상을 엿볼 수 있다.

먼저, 김지만 의원은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26건을 발의해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촉구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팝업레스토랑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김재우 의원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3건과 팔공산의 의미를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 제안, 대구시 도시브랜드 구축의 문제점 개선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선 대구문화재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운영과 예산집행, 대구의료원의 재정적자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홍인표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건을 발의했고, 시정질문을 통해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위원장을 맡아 대구경북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에 힘써 왔다.

이태손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뷰티산업에 대한 대구시 정책적 관심 촉구하는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추진하여 시정견제에 힘쓰는 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김성태 의원은 대구시맑은물공급추진특위 위원장으로 식수원 공급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황순자 의원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의 집중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역 여론 형성에 앞장섰다.

송영헌 의원은 성서행정타운 부지 개발과 환승공영주차장 건설,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 방안 마련, 동학정신 재조명, 학교주변 불법주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시정견제에 힘썼다.